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7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1.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하나님, 가을의 분기점에 서서 지나온 날을 돌아봅니다. 아프고 쓸쓸하고 슬펐던 날도 떠오르고, 벅차도록 행복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뭔가 허전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뚜렷한 꽃대를 정하지 않은 채 내닫기만 했던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가쁜 숨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가을에 우리 마음이 보름달처럼 원만하게 열리게 해주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착하지 말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눈길을 주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정신의 핵심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고후4:6 인도자

♠ 교 독 문 26. 시편104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이명희 집사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98.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함께

성경봉독 I. 시119:65-72 인도자

II. 딤후2:22-26 연태호 청년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장영숙 전도사

II. 젊은 그대 김기석 목 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302.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정욕을 위하여 힘쓰다가 공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에게 주어지는 행복에 맞들이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를 우리의 노래로 삼고 살겠습니다.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우리 눈이 헛된 것에 끌리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뜻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경 맥잡기/김기석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기도 : 김준호 권사	기도 : 박범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방문성 장로	인도자 강순배 권사

9월	영접위원	한완식	하현철	조문규	강순배	최성애	진정숙
	헌금위원	조병무	김중수	김정길	송양진	허정윤	이순정

참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

어떤 수도자의 따뜻한 배려로 새소리 물소리 맑은 사원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사원에서 꿈 없는 깊은 단잠을 자고 있는데, 동창이 흰해진 바깥에서 수련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보니, 일찍 깨어난 수도자들이 막 동트는 햇살을 이마에 이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 싸리비로 흙 마당을 쓰는 모습을 본 것이 언제였던가요.

나는 고향 옛집에 돌아온 듯한 흥취에 젖어 수도자들이 마당 쓰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비질을 다 마친 도반道伴이 빙긋이 웃으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마당 쓰는 것 처음 보세요?”

“그렇진 않아요. 비질하시는 모습이 하두 보기 좋아서요.”

“하긴 그럴 거예요. 40년을 새벽마다 쓸었는데! 이 비질에도 法度가 있습니다. 허허허!”

도반은 허허롭게 웃으며 농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농 속에 깃든 진실 한 울을 가슴 깊이 여며 두었습니다.

과올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를 밤늦도록 읽고 난 뒤 나는 문득 왜 그때 그 일이 떠오른 것일까요? 도반이 툭 던졌던 말처럼 비질에도 ‘법도’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하고 깊은 것입니까.

40년을 한결같이 자기 존재의 마당을 비질하며 그 속에 깃든 삶의 비의를 본 도반처럼, 양떼를 돌보며 책에서보다 양들에게서, 그리고 여행에서 더 배울 것이 많은 것을 스스로 터득해 가는 소설 속의 주인공 산티아고처럼, 우리에게는 저마다 자기가 알뜰살뜰히 가꾸어 가야 할 자기 고유의 생이 있는 것이지요.

양치기 소년을 만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그것을 ‘자아의 신화’라고 일컫습니다.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이지.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자네가 무언가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를 시련의 머나먼 여정으로 내몰았던 ‘자아의 신

화’를 이룬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늘이 이미 예정한 자기만의 보물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비꽃은 제비꽃으로서 피워야 할 생의 뭉이 있고,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로서 꽃 피워야 할 생의 뭉이 있듯이, 인간은 저마다 스스로 꽃 피워야 할 생의 뭉이 있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자기만의 생의 뭉을 인도인들은 ‘다르마(의무)’라고 부른다더군요.

소설의 주인공 소년 산티아고는 자기만의 이 보물을 찾는 여정에서, 깨달음이 깊은 영혼의 스승을 만나 ‘삶의 연금술’을 배우게 됩니다. 연금술이란, 납과 같은 쇠붙이를 금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현자賢者들에게 금이란 가장 진화한 형태의 금속입니다. 진화의 상징인 금, 오직 이 금만을 좇는 이들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산티아고는 위대한 연금술사 노인을 통해, 진정한 연금술이 무엇인가를 배워 나갑니다.

연금술사 노인은 산티아고에게 알려줍니다. 연금술의 참된 의미는, 납을 단지 금으로 바꾸는 기술의 터득에 있지 않고, 납을 금으로 바꾸려할 때 그 당사자도 금처럼 진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납을 금으로 바꾸는 일에는 관심이 있으나, 우리 자신이 금이 되는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그렇게 되기를 두려워합니다. 현재의 처지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크리스탈 상인처럼, 혹은 영원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나왔으나 소유가 많아 예수를 떠나갔던 성서 속의 부자 청년처럼(마가복음 10:17-22), 우리는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존재로 탈바꿈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거둢납이란, ‘나’ 혹은 ‘나의 것’이 존재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하고, 미지未知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단한 사막의 여정에서 목숨의 위기에 직면한 주인공 산티아고가 ‘바람’으로 변해야 했을 때, 그 역시 두려움으로 몸서리칩니다.

이 중대한 시련의 고비에서 산티아고는 만물의 소리를 듣습니다.

입 없는 사막과 바람과 태양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고 그도 말을 건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천지만물 중의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어.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어. 모든 게 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 심지어 인간이 바람으로 변할 수도 있어. 물론 바람이 도와 줘야 하지만.”

(고진하, <이 아침 한줌 보석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상 처

--마중기

소나무 숲길을 지나다
솔잎내 유독 강한 나무를 찾으니
동치에 깊은 상처를 가진 나무였네.
속내를 내보이는 소나무에서만
싱싱한 육신의 진정을 볼 수 있었네.

부서진 곳 가려주고 덮어주는 체액으로
뼈를 붙이고 살을 이어 치유하는지
지난날 피맺힌 사연의 나무들만
이름과 신분을 하나 감추지 않네.
나무가 나무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네.

나도 상처를 받기 전까지는
그림자에 몸 가리고 태연한 척 살았었네.
소나무가 그 냄새만으로 우리에게 오듯
나도 낯선 피를 흘리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네.
우리들의 두려움이 숲으로 돌아가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당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한완식 임정자 강인식 김정숙 김준호 광혜자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김해권 김창원 정지은 백승민 김유명 호숙구 박애순 조박애행 박창선 김희권
 이한림 김명희 정완수 김재광 홍순구 안홍숙 관병구 박조관 박홍선 권미숙

월정헌금:

고속이 김정애 박병구 최윤희 류건형

감사헌금:

우순덕 윤정덕 구성실 윤석철 장혜숙 유영남 황경순 오송경 배근수
 박병구 장미란 임승동 백혜숙 김성자 허경기 진정애 무명6

생일감사헌금: 김창원 정지은

캄보디아우물헌금: 한경숙 임원민 한준혜 무명1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윤정덕 구성실 윤석철 장혜숙 임승동 백혜숙 이영순
 고속이 미래홍부외과 무명1 (누계: 114,670,000원)

◇ 속회 보고 ◇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장혜숙	박영희	하재두
베들레헬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배부례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이소순	서원금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곽혜자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조병주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송의섭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임미심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갑재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강순배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이형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정현주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교회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송양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영란	야외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정진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청년주일** : 청년 예수 정신에 사로잡힌 이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2. **임원회** : 2부 예배 후 9월 정기임원회로 모입니다.
3. **청년부** : 오늘 청년집회시간에는 올 여름 김재홍 목사가 다녀온 일본 생명·평화·역사 기행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4. **한가위** : 한가위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석 아침 예배문을 잘 활용하십시오. 화요일과 수요일의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5. **100주년 팀장회의** : 다음 주일 오후 집회 후에 모입니다.
6. **신앙실천** : 모처럼 만나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기를 전하십시오.

* 식당 봉사 : 나사렛 속

토요봉사(29일): 김금순 강순배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한지혜 (생일)

<새교우 소개>

2728 이재정 소속 :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